

2억 챙긴 송영선 전 진안군수 구속

군수 시절인 2014년 5월 골프장 준공 허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 받은 혐의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2억원을 챙긴 전 진안군수가 구속됐다.

지난 25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영선(66) 전 진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송 전 군수는 만선 4기와 5기 진안 군수를 역임했으며 지난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향로 현 진안군수에게 7.48%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이었던 송 전 군수는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했다.

같은 날 전주자법 영장전담 최수진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 있다”며 송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전 군수는 군수 재임시절인 지난 2014년 5월 진안의 한 골프장 준공 허가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송 전 군수가 경찰 추적을 피해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 전 군수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이 확실해 재판을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오간 돈이 더 있



“춥다 추워”

지난 26일 전북지역에 사흘째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주시 호자동 한 길가를 한 행인이 추위에 떨며 지나고 있다.

는지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

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 전 군수는 재임시절 비자

금 통장과 관련해 의혹이 재기된 바

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설 가스시설 안전점검

전주시가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설을 맞아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설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원산구청·덕진구청·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가스시설 88개소를 대상으로 설맞이 안전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가스공급시설인 LPG·CNG 충전소 41개소와 LPG·고압가스 판매소 33개소, 그리고 가스사용시설 중 디중이용시설인 박화점·전통시장·타미널 등 14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 준수실태 △안전관리자·전문교육 이수 여부 △안전장치 작동여부 △관련법규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설 연휴 동안에는 종합신황실을 운영해 가스사고 발생 시의 응급 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불편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모집

전주시, 2월 1일~6일까지 선착순 150명 접수

버스터미널 편리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시내버스 운행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도와 서비스 향상을 도울 2018년 상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모니터링제를 통해 불편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행정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매월 7회 이상 전주시 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청소년과 대학생, 직장인 주부 어르신 등

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선착순으로 총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모니터단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버스에 탑승해 관찰과 질의를 통해 운행실태와 버스기사 친절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친절한 버스운전기사를 만났을 때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전주시내버스 친절기사’로 추천·제보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흡한 시현이나 시정이 필요한 시현에 대해 제보하면 해당회사에 통보돼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등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모니터단에 대해서는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촉된 모니터단은 본인이 필요한 시간대에 버스 이용 후 운행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 모니터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 매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월 7회 이상 활동자에게는 매월 평가비 1만원이 지원된다. 또 모니터링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모니터단에게는 연말에 전주시장 표창이 수여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앞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른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전주시, 청년 글로벌 진로특강 열어

1기(2월~5월) ‘글로벌 진로 두드림’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국제기구 등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돋는다.

시는 지난 26일 전주충무비전센터 글로리아홀에서 취업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전주지역 청년들

이 국제적 진로 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한 ‘청년 글로벌 진로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국제활동 및 해외취업에 대한 기초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 글로벌 진로 두드림’ 코칭 프로그램은 △글로벌 취업 △국제기구와 외교부 △국제 민간단체 △국제창업과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8회에 걸쳐 소그룹 멘토링을 실시한 후 6월 초 국제활동단체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1기 ‘글로벌 진로 두드림’ 수강은 전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서는 네이버폼 (<http://naver.me/FhcRTz>)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은자 신성경산업본부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서 청년들의 진로 고민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도 체

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전국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정신을 심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익산에서 조폭 개입 집단폭행 발생

경찰, 5명 검거·3명 추적 중

익산에서 조폭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일행 중 5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피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22)씨를 구속하고 일행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신동의 한 술집에서 B(22)씨 등 5명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술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가 ‘B씨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쳤다’며 시비가 불어 싸움이 시작됐다.

또한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평소에 알던 사이로 사회 선후배면서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달아나다가 길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C(25)씨를 B씨 일행으로 오인해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달아난 피의자 3명의 도주경로와 은신처를 파악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미성년자 알고도 성매매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자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말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매매를 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B양에게 대기를 지급하고 여려차례 성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